

# '조민 입학 취소 건'에 관해 정진택 총장님께 드리는 말씀

11월 15일 포털 공지사항에 정진택 총장님과 고려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팀 명의로 게재된, “조국 전 장관 자녀 본교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본교의 입장과 대응 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그리고 **2006년 교수 감금 사태 및 출교 조치**에 대한 단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 <정경심 교수 공소사실 관련>

총장님께서서는 포털 공지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교는 본 사안을 포함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당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본교가 가진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지난 11월 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타고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자료 가운데 세 건이 본교 입시에 사용되었으리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 자료들을 실제로 본교에 제출했는지 여부 및 근거를 공소사실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언론의 취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본교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A: “공소사실에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실제 공소내용 발췌**

“의학논문 제1저자로서 능력을 갖추고 실험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처럼 [...]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체험활동 확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해주고, [...] HOO고에 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게 하였다.”

[...]

“지속적으로 연수와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 논문 초록집 수록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CO대학교 OOOO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4장을 발급받았으며, [...] 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HOO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게 하였다.”

자료B: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 중 **세계선도인재 특별전형 전형요소 및 유의사항 발췌**

라.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전형요소	어학 또는 AP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1단계 성적	면접	
반영비율	40%	60%	70%	30%	100%
※ 1단계에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함					
2) 평가방법					
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교과 및 비교과)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함					
라.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4) 자기소개서 등 서류 작성 시 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5) 서류 위조, 변조 및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총장님께서서는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허위 자료들을 실제로 본교에 제출했는지 근거를 공소사실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제시한 발췌자료에 명백하게 드러나듯,

- (1) 조민은 여러 개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HOO고에 제출,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게 하였고
- (2)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60% 반영, 공인시험 성적과 합쳐 2단계에서 70% 반영했습니다. 위조 생기부가 입학사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조민이 제출한 허위 스펙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고려대 관계자가 이미 “**검찰이 고려대 압수수색 때 조민 증빙자료 제출 목록 가져갔다**”는, **총장님 의견에 상반되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기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 자체는 보존기간(5년)이 지나 폐기했지만 **수험생이 냈던 증빙자료의 목록은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목록엔 최대 12개의 제출 자료가 기록됐다.” (참고자료: [단독]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7533?ntype=RANKING>.)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조민이 제출한 허위 스펙이 입학처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HOO고에서 허위 체험활동에 근거하여 발급하였고, 고대 입학처에 제출되어 **입학사정 과정에 사용된 조민의 생활기록부에 지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며, 그 근거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대는 **평가되는 서류의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한다는 학칙을 전형안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 놓고도, 조민 부정 입학과 관련하여 ‘**입학 취소**’를 제외한 **그 어떠한 대응도 고려대학교가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정의·공정의 가치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06년 고려대 교수 감금 사태에 관한 단상>

병설 보건전문대 소속 학생의 투표권 문제로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교수님들을 감금한 학생들에, **학교 재량으로 학적을 말소시키는 출교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의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출교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 승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출교된 학생들에 고려대학교 소속 학생의 임시지위를 부여한 사건입니다. (참고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380 서울고등법원 2007나104555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36883>. 법원 “고려대 출교 조치 학생들 퇴학은 무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90121155929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901211559291).)

**그들의 행위에 크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며, 법원 또한 “교수와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대는 이를 심판하고자 법적 절차에 앞서 **대학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2009년의 조민을 보십시오.

**부족한 실력을 숨기고자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얄은수로 입학처를 속여, 얻어서는 안 되었던 고려대학교 학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난 지 5년도 넘은 지금,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제 모교를 “**구역질 나는 비리의 온상**”, “**범죄자 비호하는 똥통 학교**” 이외에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말로 고려대학교를 매도할 근거를 제공하기까지 한, 그야말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주범**이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는 도대체 왜 **부정 입학 사태에 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즉각 적극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조민은, 정정당당히 대입에 임했다는 이유로 뒤로 밀려나 **불합격한 학생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행**을, 그리고 고려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에게는 **사랑하는 모교가 무너져가는 듯한 슬픔**을 안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모교가 “우리는 당시 자료 전부 폐기해서 모르는 일이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무책임한 말과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 ① 다시금 엄중한 ‘**선조치 후법적공방**’을 취해 **정의의 이름 아래 입학 취소의 철퇴**로 단호히 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② 그리고 (그간 합리성을 가장하여 장학금을 모으느라 “아등바등”하던) ‘그들’이 혹여나 다시 한번 부정한 의도를 품고,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이에 대비해 부정 입학의 명백한 근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고대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의 정당한 분노**를 달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니다.

서글픈 마음입니다.

경영 민수